희망과 원칙을 생각하며

김진경
시인

김수영의 〈고궁을 나오며〉란 시에 "나는 왜 작은 것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하는가" 하는 구절이 나온다. 요즈음 신문을 읽을 때마다 위의 시구절이 문득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원칙이 다 무너져버린, 돈을 벌기 위해 정치인이 되었다고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정치판의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내가 소시민적 삶에 안주해버렸기 때문일까. 너무 식상해서 그런 것일까. 부분적인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분노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아니다.

큰 것에 대해 분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안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신문을 들여다보노라면 분노보다는 옅은 절망감이 가슴 밑바닥에 깔린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면 어차피 모든 것이 각자의 이해관계 실현을 위한 싸움이라는, 어차피 삶이란 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냉소와 원한에 빠지게 된다. 이 냉소와 원한이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상황이 암울할 때가 아니고 대안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이다.

왜 우리는 대안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부딪칠 때마다 나는 늘 5.18을 떠올린다.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에서 교사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엄혹한 상황에서 종로바닥에 유인물을 뿌리고 다녔다. 학생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고 투철한 역사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닌 내가 왜 전경들이 5m 간격으로 늘어서서 몸수색을 하고 있는 종로거리를 그러고 다녔는지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 상황에서 침묵하면 더 이상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는 간절한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간절한 느낌, 분노는 절망이 아니었다. 그 바탕에는 대안에 대한 희망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때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비리의 주범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원칙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한 틈을 타서 수구세력들은 권토중래의 기회를 찾고 있다. 어떤 세력도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 정치세력이 현실적으로 생존하는 길은 비이성적인 지역감정에 기대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이든 일정한 지역의 왜곡된 지역감정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을 지키는 횃불이라 할 수 있는 5.18은 지역감정의 벽을 넘어서 보편화되지 못하고 광주에 갇혀버렸다.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5.18을 광주에 가두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애를 쓴 꼴이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5.18 희생자 묘소가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흔쾌한 일로 느껴지기보다는 대단한 역설로 느껴질 뿐이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인 어느 정치인이 《아름다운 원칙》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아름다운 원칙'이란 말이 아름답게 들리기는커녕 대단한 역설로 들리게 만든다.

다시 맞는 5.18에 희망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다시 원칙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생각한다. 작게는 5.18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하게 정리해보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책읽기이든 책을 펴내는 일이든 말이다. 우리가 희망과 원칙을 새삼 생각하지 않는다면 5.18이든 아름다운 원칙이든, 이윤을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이름에 불과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희망은 영원히 사라지리라. ❖

출판저널
1997년 5월 20일 제214호
격주간 · 매월 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도서전 참관기 2 차분한 책잔치로 외형보다 '내실'
'97 서울국제도서전, '책, 우리의 미래' 주제로 5일간 열려
초점 4 책값 파괴, 업계 자정노력으로 극복해야
재경원서 '정가제 개선촉구안' 권고, 출판계 대책 강구
출판 포커스 5 도서관 진흥기금이 필요없는 사회 — 이중한
기획취재 6 한손에 분필 들고 뛰는 출판인들
리뷰 8 90년대 '포스트 페미니즘'의 다양한 빛깔
이론과 흥미 조화된 고른 영역의 출판 기대
화제의 출간 9 프랑스 여성작가 소설 활발
출판시평 10 독자에 영합하는 고려시대 대중역사서 — 박종기
대중화 미명 아래 잘못된 역사의식 표출
출판화제 11 역사여행의 즐거움 안겨준 《역사신문》
12 '공동체' 모색하는 유럽의 어제와 오늘
13 넓고 깊어진 현대미술의 세계
14 소설 속에 되살아나는 역사인물
15 "이제 고개를 드세요, 아버지"
문학화제 16 최근 타계한 김소진 · 이균영 · 이태, 세 작가가 남긴 책
신간읽기 18 열정이 지식을 대신할 수 있다면 — 복거일
비비안느 포레스테의 《경제적 공포》를 읽고
책갈피 산책 19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읽고 — 공선옥
나의 학문과 책읽기 20 사회와 인간, 세계를 잇는 책읽기 — 김학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소설
연재기획 22 웅변은 '은'이나 대화는 '금'이다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⑧
서평 24 김병준 《중국 고대 지역문화와 군현지배》 — 윤재석
오영환 《화이트헤드와 인간의 시간경험》 — 윤자정
25 비트겐슈타인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 — 엄정식
전형준 《현대 중국의 리얼리즘 이론》 — 이종민
26 밀네르 《프로이트와 문학의 이해》 — 정장진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 김성국
27 윌슨 《폐니실린을 찾아서》 — 이면우
이 책 그 사람 28 《한국영화발달사》 펴낸 유현목씨
《대머리와의 사랑》 펴낸 성미정씨
29 《어느 아버지의 일기》 펴낸 주동설씨
《새로운 모색》 펴낸 이원섭씨
30 새책 속으로 / 34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⑩

표지/한준호 (관련기사 2면)